

II. 정치 및 경제 현황

1. 정치·외교 현황

가. 근대 정치연혁

□ 1948년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의 법규화

- 1909년 영국의회의 남아프리카법(South Africa Act)에 의거 4개 주 형태의 남아프리카연방(영연방 자치정부)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1910년 5월 31일 영연방 국가로 독립하였음. 초대 수상으로 취임한 루이스 보타(Louis Botha)는 식민지 시대 연장선상의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펼침.
- 1911년에는 백인의 실업률을 낮추고자 광업 분야를 백인들이 독점하도록 하고, 1913년에는 국토의 7.8%만을 흑인들이 소유하도록 하는 ‘원주민토지법’을 법제화 함.
- 남아프리카연방의 결성을 위한 헌법초안이 전적으로 백인들의 지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드러나자, 1912년에 아프리카민족회의

(South African Native National Congress : SANNC¹⁾)가
결성됨.

- 1914년, 보어(Boer)²⁾인의 독자성과 민족의식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영연방 제국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프리카너 (Afrikaner)³⁾ 출신들이 국민당(National Party : NP)을 결성
 - 1948년 다니엘 말란(Daniel Malan)이 이끄는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인종차별정책이 노골화됨. 국민당은 단순한 차별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전분야에서 백인과 흑인을 격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49년 인종간의 결혼이 금지되었고, 1950년에 '인구등록법'에 의거, 전국민을 인종별로 분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이 밖에도 '집단지역법', '유권자분리 대표법', '공산주의 금지법' 등을 선포하며 흑인들의 정치적인 개입을 일체 차단시킴.

□ 1950~70년대, 흑인 저항운동 시대

- 1944년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 등이 중심이 되어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청년단을 결성하였으며, 시위와 파업형태의 적극적인 투쟁방식을 통해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음.

1) 1923년에 African National Congress(ANC)로 명칭 변경
 2)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주한 최초의 네델란드인들 일컫는 명칭
 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백인 중 케이프 식민지를 형성한 네델란드 이민자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위그노, 독일계 개신교도 같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아프리카 남부에 정착한 개신교도가 합류하여 형성된 민족집단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1958년에는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범아프리카회의(Pan Africanist Congress : PAC)가 결성되었으며, '순수 아프리카인들의 아프리카'를 주장하며 정부에 대항하였음. 1960년 3월, 샤프빌(Sharpeville)에서 일어난 대중 시위에서 67명이 사망하는 등 남아공 내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 이후, 아프리카민족회의와 범아프리카회의 모두 불법 조직체로 간주됨.
- 1961년, 영연방(The Commonwealth)을 탈퇴하며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이 수립되었으며, 더욱 강력한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하자 전국적으로 민주화 투쟁이 확산됨.
- 1962년 만델라 등 핵심 인사들의 대거 검거로 학생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흑인저항운동이 전개됨.
 - 아프리카민족회의와 범아프리카회의 지도부는 인근 국가로 망명한 뒤 무장투쟁 조직인 '민족의 창'(Umkhonto we Sizwe)을 결성, 인종차별정책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침. 1964년, 정부는 넬슨 만델라를 포함한 '민족의 창' 지도부를 종신형에 처함.
 - 1953년 반투교육법(The Bantu Education Act), 1956년 산업중재법(The Industrial Conciliation Act)을 통해 국민당은 흑인에 대한 교육과 취업을 제한함. 이에 대항하는 시위에 학생과 노동단체들이 가담하면서 반정부 움직임이 국가 전역으로 확대됨.
- 1970년대에 들어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1976년 6월 16일, 요하네스버그 교외에 있는 흑인 거주 지역인

소웨토(Soweto)에서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약 600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함.

- 이 사건은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아프리카 비동맹 제국과 스웨덴, 파나마 등 8개국은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 소웨토 폭동 사건 이후, 다수의 흑인들이 반정부 조직에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조직이 크게 강화됨. 국민당 정부는 흑인들과 유색인종에 대한 유화책을 강구하기 시작함.

□ 1980년 갈등의 고조와 국제사회의 압박

- 1978년 혁신주의를 천명한 피터 보타 (Pieter Botha) 수상이 대통령에 취임하며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듯하였으나, 백인 극우단체와 국민당내 강경파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강경노선을 택함.
- 1985년 유텐헤이그(Uitenhage)에서 샤프빌 학살 25주년 추모행사 후 경찰이 다시 흑인들을 향해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 20여명이 사망하면서 갈등이 고조됨.
- 그해 10월, 남아공 흑인단체들과의 대화를 촉구한 유럽공동체(EC) 사절단의 제의를 일축하고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등 인근 국가들을 공격하였으며, 1986년 6월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함.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미국, 유럽연합, UN 등 국제사회는 남아공에 대한 신규투자 및 주요 상품의 교역금지 등을 결의하며 경제제재로 압박하였으며, 이는 남아공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며 정부를 곤경에 빠뜨림.

□ 1990년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의 서막

- 1989년 프레드릭 드클러크(Frederik De Klerk)는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공공시설분리법 철폐 등 인종차별정책 폐지 및 개혁조치를 취함.
- 넬슨 만델라를 포함한 흑인 지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1990년 2월 만델라의 석방을 주도함.
 - 5월, 아프리카민족회의는 무장투쟁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와 헌법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협상을 시작함.
- 각종 인종차별정책이 철폐되는 가운데, 1994년 4월, 남아공 최초로 전 국민이 참가하는 민주선거가 실시됨. 동선거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의 승리와 함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가 취임하게 됨.
- 1999년, 타보 음베키(Thabo Mbeki)의 제2대 흑인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면서 남아공 내의 인종차별정책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 음베키 대통령은 2004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어 2009년까지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각종 비리의혹으로 인해 2008년 9월 사임하게 됨.

나. 최근 정치상황

□ 2008년 9월 음베키 대통령 사임

- 2007년, 음베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제이콥 주마(Jacob Zuma)와 아프리카민족회의 의장 자리를 두고 권력싸움을 벌이던 도중, 무기거래에 의한 불법 자금수수 사실이 드러나며 퇴임의 압력을 받음.
- 1994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정권 수립 당시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음베키는 1999년 제2기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2004년에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08년 9월 21일 사임함.
- 음베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이후 남아공 국회는 간접선거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 부의장 칼레마 모틀란테(Kgalema Motlanthe)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함.

□ 아프리카민족회의와 반아프리카국민회의 간의 대결

- 음베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반발하여 국방장관직을 사임한 모슈아 레코타(Mosiua Lekota)와 음바지마 실로와 (Mbhazima Shilowa) 전가우텡(Gauteng) 주지사가 주축이 되어 지난 2008년 12월 아프리카민족회의 비주류로 이루어진 국민회의당 (Congress of the People : COPE) 창당을 결의함.
- 국민회의당의 전당대회에 헬렌 질레 (Helen Zille) 민주동맹 (DA) 당수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레코타 국민회의당 의장 또한 다른 야당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키로 해 남아공 정국은 아프리카민족회의 대 반아프리카민족회의 대결구도로 짜이게 됨.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아프리카민족회의와 국민회의당의 분당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당내 두 정치거물인 음베키 전 대통령과 주마 대통령의 대립, 음베키 전 대통령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대한 아프리카민족회의내 주류세력의 불만, 마지막으로 남아공 내 최대 부족이며 주마 대통령의 출신부족이기도 한 줄루(Zulu)족과 그 외 소수부족 간 갈등 등이 분당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2009년 4월 22일 총선결과, 아프리카민족회의는 264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였으나, 총의석수의 3분의 2에 약간 못 미치는 의석수를 확보하며 향후 정책 입안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1> 총선결과 의석분포 비교

정 당	2009.4월	2004	1999	1994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	264	279	266	252
민주동맹 (DA)	67	50	38	7
잉카타 자유당 (IFP)	18	28	34	43
아프리카 기독교민주당 (ACDP)	3	6	6	2
국민회의당 (COPE)	30			
독립민주당 (ID)	4	7		
통일 민주전선 (UDM)	4	9	14	
범아프리카회의 (PAC)	1	3	3	5

자료 : EIU, Country Profile : South Africa, 2008 및 필자정리.

□ 2009년 5월 주마 대통령 취임, 경제노선의 일부변경 전망

- 2009년 5월 9일, 제이콥 주마 (Jacob Zuma) 대통령이 취임 하였음.
- 아프리카민족회의 내 주요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진보성향의 남아공 노동조합총연맹(Congress of South Africa Trade Union : COSATU)과 남아공 공산당(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 SACP)의 영향력으로 남아공 경제 정책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주마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역설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공급 등 진보세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표 II -2>

내각 주요인사

구 분	명단 (소속정당)
대통령 (국가원수)	Jacob Zuma (아프리카민족회의)
총리 (국정실권)	Collins Chabane (아프리카민족회의)
재무부장관	Pravin Gordhan (아프리카민족회의)
외무부장관	Maite Nkoana-Mashabane (아프리카민족회의)
중앙은행 총재	Gill Marcus

다. 대외관계

□ 대외협력 관계 강화 모색

- 지난 93년 UN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이후 남아공은 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자간 무역체제뿐만 아니라 FTA 등 양자간 무역 협정도 적극 추진중임. 또한 아프리카 경제대국으로서 남아프리카 경제공동체 (SADC)⁴⁾,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⁵⁾ 등 경제 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음.
- 또한 2001년에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NEPAD)를 결성, 아프리카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남아공은 남아프리카관세동맹과 EU간 FTA 협상, 미국, 중국, 인도 등과의 FTA협상을 진행중이며, 중남미 공동시장 (MERCOSUR)과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특혜무역협정 체결 이후 FTA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4)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SADC)는 남부아프리카 14개국이 1992년 8월 창설한 경제 협력체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퇴치 및 생활수준의 질적인 향상 도모, 지역통합을 통한 사회적 이익의 제고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5)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SACU)은 1969년에 창설된 관세동맹체로 회원국은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레소토 등임. FTA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로,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국제사회 위상 강화

- 현재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이익을 대표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는 목표하에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음.

2. 경제 현황

<표 II-3> 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지표 비교
(2009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

	가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G D P	155	2,877	1,841	291
인 구 (백 만 명)	23.8	49.3	143.3	39.8
1 인 당 G D P	651	5,835	1,285	731
경 제 성 장 륜	4.0	-1.8	6.7	2.6
실 업 륜	11.0	24.0	4.9	40.0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륜	16.0	7.1	12.4	5.3
재 정 수 지 / G D P	-9.7	-5.7	-4.4	-5.5
상 품 수 출	572	665	471	445
상 품 수 입	844	660	331	922
경 상 수 지 / G D P	-9.2	-4.0	5.6	-5.4
외 환 보 유 액	245	397	432	385
총 외 채 잔 액	563	432	105	775
D. S. R.	8.3	8.8	0.9	3.9
환율(연평균, 달러당)	1.41	7.36	148.84	76.00 (연말 기준)

자료 : EIU, Country Report 및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09.

가. 국내경제

<표 II-4>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제 성 장 률	5.6	5.5	3.7	-1.8	2.8
재 정 수 지/G D P	0.5	1.2	-0.6	-5.7	-6.8
소비자물가상승률	4.6	6.5	11.3	7.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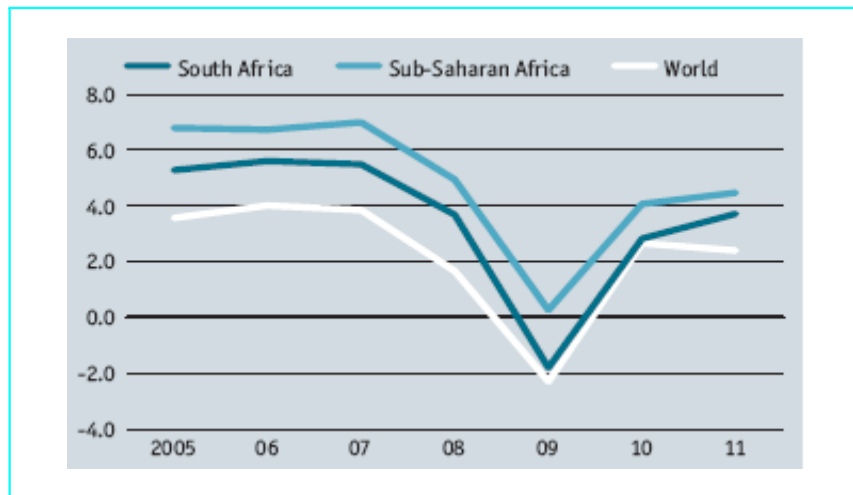
자료 : IMF 및 EIU.

□ 세계 경기침체 및 전력난으로 2009년 경제성장 둔화

- 2010년 월드컵 유치에 2004년 확정된 이후, 남아공 정부는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공공지출 및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급증하였음. 또한 은행업, 보험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물가 안정, 민간소비 확대, 저금리 기조 등이 이어지며 남아공은 2007년 5.5%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그러나 남아공 경제는 2008년 들어 국제원자재 및 식품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급등, 남아공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력 공급 불안정 심화 등에 따른 산업 생산량 및 민간 소비의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7%로 둔화됨.
 - 전기공급 지역의 확대와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전력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정책의 혼선으로 지난 수년간 전력시설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해 초과전력 생산능력이 세계 기준 15%에 못 미치는 8%에 불과한 실정임.

- 2009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국내외 수요감소로 수출 및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남아공 경제는 1.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월드컵 개최를 통한 경기부양효과로 2.8%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1>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자료 : EIU Country Report : South Africa, June 2010.

□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될 전망

- 2006년 흑자 전환 이래 2007년에도 GDP 대비 1.2%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08년 4월 법인세 인하(29% → 28%)로 인한 세수감소,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08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6%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들어

II. 정치 및 경제 현황

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5.7%로 확대됨.

- 전력시설 확충 및 2010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치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규모 대비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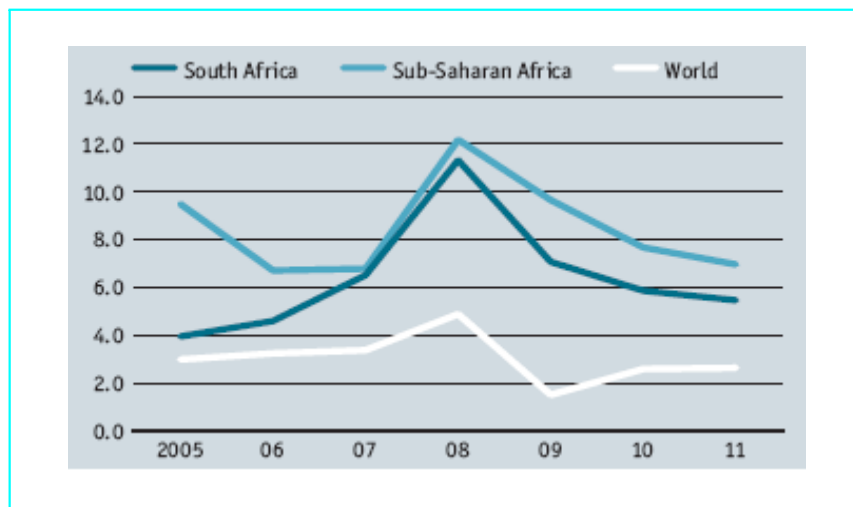
- 2008년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 등 국제시장의 불안정한 요소로 남아공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3%를 기록하였음.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1%로 둔화되었지만, 생산자물가상승률은 16.4%에 이르고 있음.
- 국제유가하락과 함께 식료품과 에너지 부문의 가중치를 줄인 새로운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식이 200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아공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둔화되어 2010년에는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금융 허브 역할

- 남아공은 선진국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남아공의 금융산업은 남아공 총 GDP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해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화거래 또한 상당부분 자유화 하였음.

-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남아공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바클레이스 (Barclays)를 비롯한 해외 메이저 금융기관들은 남아공 금융회사 지분취득을 통해 남아공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그림 II-2> 소비자물상승률 추이 비교



자료 : EIU Country Report : South Africa, June 2010

□ 높은 빈부격차 수준

- 남아공은 세계 최고의 소득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국가중 하나임. 교육기회 부재로 미숙련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흑인인구의 3분의 2 가량이 월 250달러 미만의 저임금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고학력 백인인구를 중심으로 부가 편중되어 남아공 총소득의 3분의 2가 상위 20%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인종차별정책 폐지 이후 흑인정권의 지속적인 통합정책으로 인해 인종간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 1960년 기준 백인과 흑인의 총가처분소득 보유 비율이 각각 69.4%, 23.2%에서 2007년 40.4%, 46.5%로 개선되었음. 하지만 같은 인종 그룹내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높은 실업률과 함께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나.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 최근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침체로 상품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목인 금, 백금의 국제거래가격 하락세로 인해 전년 대비 수출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음.
- 반면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재 수입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지속되고 란드화 약세로 인해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5.3%에서 2008년 7.3%로 확대됨.
- 관광수입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남아공 기업의 본국 송금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및 자본수지 부문에서도 적자를 기록함.

□ 세계 경기침체로 무역 규모 큰 폭으로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수요의 급락으로 2009년 남아공 무역 규모는 크게 위축되었음. 2009년 수출은 666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2.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66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7.2% 감소하였음.

<표 II-5> 주요 대외거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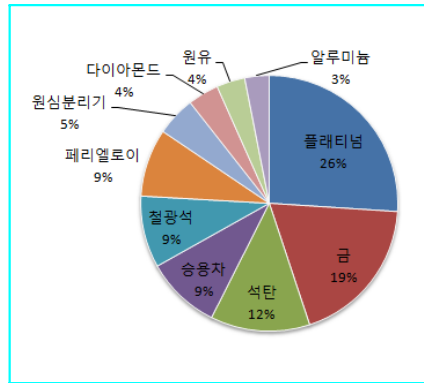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13,745	-20,572	-20,084	-11,533	-15,970
경상수지/GDP	-5.3	-7.2	-7.3	-4.0	-4.9
상 품 수 지	-4,195	-5,741	-4,448	620	-417
수 출	65,824	75,921	86,119	66,640	71,499
수 입	70,020	81,661	90,567	66,020	71,916
외 환 보 유 액	25,587	32,943	34,069	39,675	41,665
총 외 채 잔 액	35,500	43,400	42,400	43,200	45,300
총외채잔액/GDP	23.1	26.5	25.9	27.3	30.6
D S R	6.4	5.9	5.3	8.8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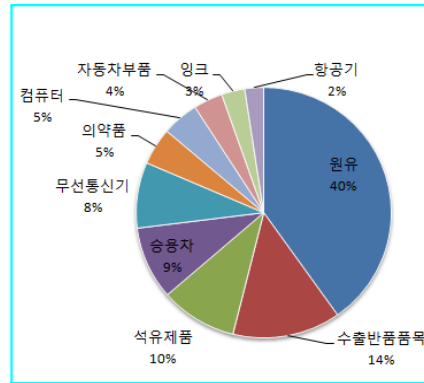
자료 : IMF 및 EIU.

- 현재 주요 수출국은 일본(11.1%), 미국(9.9%), 독일(8.0%), 영국(6.8%), 중국(6.0%)이고, 주요 수입국은 독일(11.2%), 중국(11.0%), 미국(7.8%), 사우디아라비아(6.2%)임.

<그림 II-3> 주요 수출품



<그림 II-4> 주요 수입품



주 : 2008년 기준
 자료 : 남아공 관세청.

□ 외환보유액 증가세

- FDI 유입증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외환보유액은 2008년 341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6.4% 증가한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양호한 외채건전성

- 1986년, 1987년, 1990년의 총 3회에 걸친 리스케줄링 이후 추가적인 리스케줄링이나 채무불이행 사례가 없음.
- 2008년말 총 외채잔액은 424억 달러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25.9%) 및 DSR⁶⁾ (5.3%)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지속적인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편임.

6) Debt Service Ratio로 약어로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상환액을 나타냄.